Strictly Private & Confidential

News Clipping(2018년 6월)

P N S / 고 객 지 원 팀

2018년 05월 30일

차별화된 유통역량으로 고객과 함께 하는 No.1 종합지류유통사



Hansol

CONTENTS

1. 제지사/업계 동향

- 출판계 '서점 기행'에 빠지다 _ 매일경제 _ 5/3
- 불황 해법 '펄프 픽션' _ 아시아경제 _ 5/16
- '책의 나라' 파주출판도시 20년 만에 조성 완료 _ 연합뉴스 _ 5/17

2. 에너지 동향

- 펄프
- 고지가
- 환율
- 유가

3. 제품정보/뉴스레터

- 한솔제지 프리미엄 고급인쇄용지 앙상블 E-Class
- 한솔제지 뉴스레터 가지(加紙 - 더할가, 종이지)

특집. 한솔PNS㈜ 서비스 소개

News Clipping

출판계 '서점 기행'에 빠지다.

도쿄 B&B 경영자 신타로와 편집자 요시노부는 2년 전 서울을 방문했다가 '서점 붐'과 독립 출판의 현장을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출판 대국' 일본에서조차 외면당하는 서점에 젊음을 던지는 이들에 감탄해 2년에 걸쳐 서울 서점 여행을 떠났다. 도쿄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는 유례없는 서점 붐이 일고 있다.** 2017년 여름 이후로 **'동네 서점'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서점이 일주일에 한 군데는 생겨나고 있다.** 서점을 개업한 이들은 1980년대 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 " 이며 **서점 붐이 새로운 청년 문화의 일환**임을 짚어낸다. "서울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기 넘치는 움직임이야 말로 책과 콘텐츠 미래에 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감탄하기도 한다.
위클리 뉴욕 본사에서 한 달간 일하게 된 편집자 안유정 씨는 '다녀왔습니다 뉴욕 독립서점' (왓어북 펴냄)을 펴냈다. 이 책은 독서 인구 감소와 인터넷 서점의 공격적인 마케팅,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생존 보고서다.

매일경제 I 5월 3일 I 출판/도서

불황 해법 '펄프 픽션'

무림 4:3:3, 한솔 3:3:3 혁신 스토리
무림그룹 이동욱 회장은 올해 초 임직원들에게 '4:3:3 경영'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인쇄용지와 특수기능지, 펄프를 활용한 신소재 사업 비중을 각각 4대 3대 3으로 맞춘다는 내용이다.**
2011년 제지업계 최초로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을 구축한게 국제 펄프가격 등락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는 혁신이었다면 4:3:3 경영은 중국발(發) 불확실성 등 다변화한 국내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전략이다.
한솔제지 역시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부터 **인쇄용지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판지, 감열지, 팬시지, 특수지 등 성장시장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상훈 한솔제지 대표는 '3:3:3 경영'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2020년까지 **한솔그룹 내 제지 사업군의 매출을 3조원으로, 영업이익은 300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신제품 비중을 30%까지 높인다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주력인 감열지 생산 규모를 세계 1위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토대로 한솔제지를 '글로벌 톱20' 기업으로 키운다는 게 이 대표의 복안이다.

아시아경제 I 5월 16일 I 산업

'책의 나라' 파주출판도시 20년 만에 조성 완료

문화 명소인 **파주출판도시**(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20년 만에 완료된다.**
파주출판도시는 20년간의 조성 기간을 거쳐 **책의 기획부터 편집, 디자인, 인쇄, 제본, 유통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출판산업의 첨단 집적화 단지를 구축**했다.
여기에다 북카페, 도서관, 갤러리, 문화학교 등 문화시설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지향, 책과 영화의 도시 건설본부, 영상자료원 보존센터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서면서 융복합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파주출판도시는 입주업체마다 독특한 외양의 건물을 지어 개성 넘치는 건축물 집합 공간으로도 유명해졌다.
231개 업체가 자사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31개 업체는 현재 건립 중이다.
한편, **파주출판도시는 올해 '책의 해'를 맞아 주요 단체들을 중심으로 출판산업을 진흥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I 5월 17일 I 문화

2. 에너지 동향 (펄프/고지가)

2018년 6월호

Hans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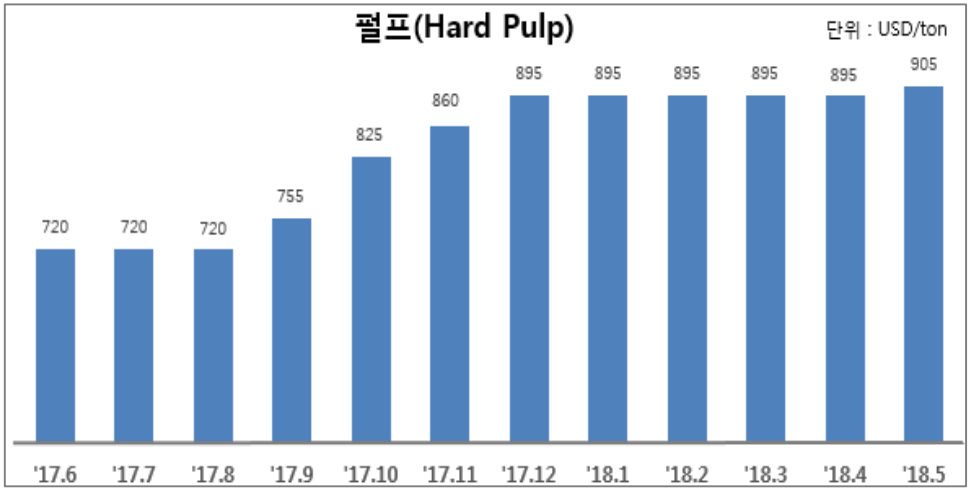
News Clipping

[펄프]

○ APP, APRIL의 공급 축소와 아카시아 공급사들의 주도적 가격인상 추진으로 중국에서 하드펄프 가격 $5~$10 인상됨

○ 5월은 메이저 공급사들의 미실현 인상분($10) 및 추가 가격 인상요인으로 $10~$20 수준으로 가격인상 가능성 있으며 라마단(5/15~6/15) 운송 차질 대비 APP 자체 비축량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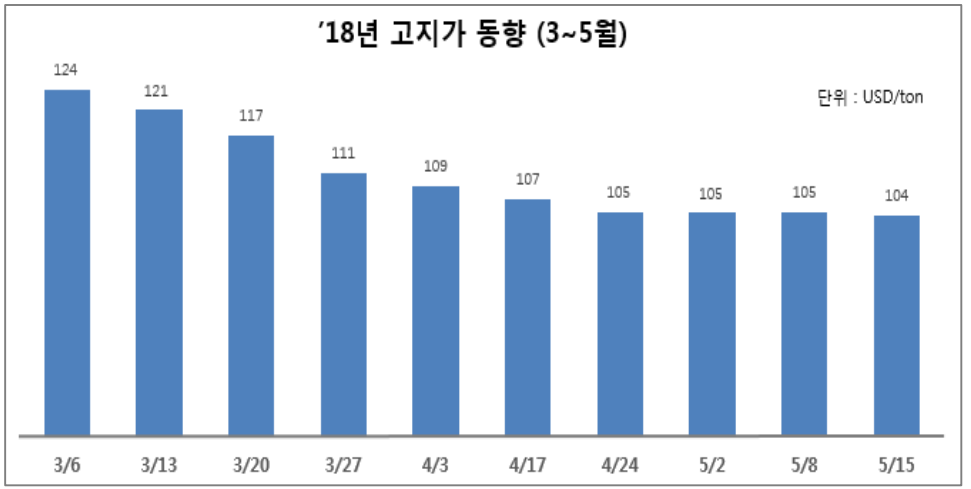
○ 펄프 가격이 역사적 고점 수준이지만 글로벌 생산능력 10% 수준인 350만톤 수준의 증설 물량이 시장에 유입되면 3분기 안에 펄프 가격 안정화 가능성 존재함



[고지가]

○ 공급자 재고 과잉(수출 감소) 및 제지사 적정재고 유지로 가격 하락 중이며 중국向 수입검사 1개월 중지 따라 가격 급락 가능성 높음

○ 환경부는 향후 추가적인 선매입과 비축을 통해 적체 물량 해소를 유도하고 가격 동향과 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



※ 출처 : RISI / 산업통상자원부

2. 에너지 동향 (환율/유가)

2018년 6월호

Hansol

News Clipping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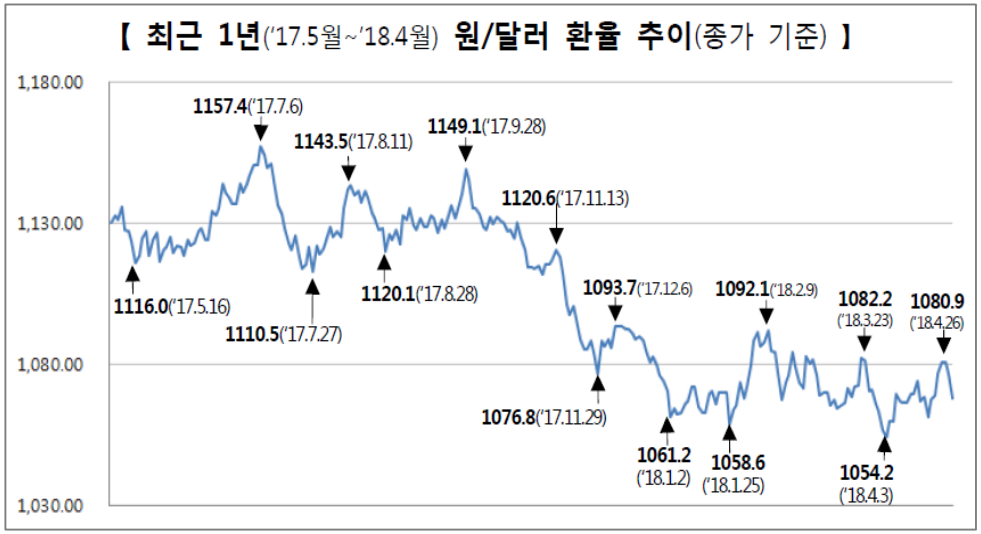
○ 환율은 월 초 美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파로 약세 출발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금 역송금 관련 매수 확대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美中 무역 분쟁 완화 조짐 등에 일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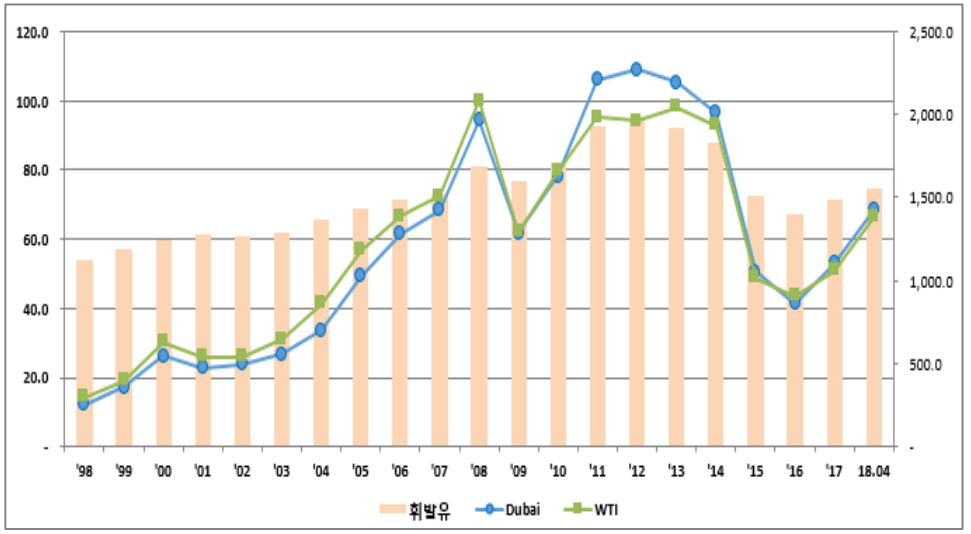
○ 월 말에 美 국채 금리 3% 돌파 등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로 급등한 환율은 월 말 국채금리 안정화 등에 위험 회피에 따른 상승폭이 꺾여 1,068.0원에 마감함

[유가]

○ 글로벌 무역 분쟁 우려, 미국 및 러시아 원유 생산 증가 등으로 임시 하락하였으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글로벌 무역 분쟁 우려 완화, 석유시장 재균형 조짐 등으로 상승으로 마침

○ 미국 석유 생산량 증가, 2018년 말 OPEC 감산 종료 예정 등 세계 석유 시장 공급 과잉 우려로 큰 폭의 유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 KESIS 에너지통계월보

2018년 6월호

Hansol

News Clipping

앙상블 E

[한솔제지 프리미엄 고급인쇄용지 앙상블 E-Class]

1. 백색도, 인쇄성, 러프감이 균형있게 어우러져 완성된 프리미엄 고급인쇄용지
2. 탁월한 색상과 이미지 재현력, 뛰어난 부피감을 가지고 있어 인쇄물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 줌

제품 스펙

평 량

- 100g/㎡ • 190g/㎡
- 130g/㎡ • 210g/㎡
- 160g/㎡ • 230g/㎡

색 상

- 백색
- Extrawhite

규 격

- 국판/4*6판 정규격 보유
- 변규격 주문 생산 가능

장 점

- 탁월한 색상과 이미지 재현
- 질감 유지, 뛰어난 잉크 건조
- 균형있는 백색도, 인쇄성, 러프감

[한솔제지 뉴스레터 가지(加紙 - 더할가, 종이지)]

- 가지는 종이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을 만나 취재하여 소개 하는 한솔제지의 감각 매체
- 종이를 매개체로 일하는 디자인, 출판, 인쇄 관련 종사자는 물론 종이를 닮은 직업과 활동가들을 만난 인터뷰가 주 내용

★ **새롭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솔제지 홈페이지 샘플북/가지 신청란에서 신청**

(담당자 : 한솔제지 마케팅팀 김예진 사원 (02-3287-6271)



2018년 6월호

Hansol

News Clipping

○ 국내 유일의 코스피 상장 지류유통사
○ 국내 최대 규모의 지류유통 (매출 기준)
○ 인쇄용지, 패키징, 특수지 국내 전 지종 공급

○ 전국 8개 통합 물류센터 운영
○ 전 제품 '클레임 Zero' 100% 보상제 시행
○ 국내 유일 月 4 Cycle 생산 체계로 최단시간 배송

① **전문화된 물류 역량과 전 지종 취급으로 One-Stop 통합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쇄용지, 패키징, 특수지 전문센터 운영
- 한솔제지와 연계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단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

② **한솔PNS 전국 유통망을 통하여 당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 8개 물류센터를 통한 전국 유통망 마련 및 제품별 전문센터 구축으로 단납기 물류서비스 실현
- PNS 전문센터 : 충무로, 파주
- 거점 물류센터 : 성북, 장항, 탄현, 천안, 신탄진, 대전

③ **고객 맞춤 제품 주 단위 주문 생산 4 Cycle 운영으로 단납기를 제공합니다.**
- 주 단위 주문 생산 체제를 통한 생산 대응 고도화
- 고객 원하는 모든 제품 공급 역량 보유
- 원지 가공으로 고객 맞춤 제품 단납기 실현

④ **1,000톤 컨버팅 가공 R/L 보유로 고객이 원하는 규격으로 재단 및 단납기 서비스 제공**
- 파주통합센터(400평) 내 인쇄용지, 특수지 재고 통합 운용으로 통합 구매 및 배송 One-Stop 서비스 제공

⑤ **패키징 컨버팅 구축으로 소량, 재단 1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컨버팅 설비 구축을 통한 납기 대응력 고도화
- SC 및 AB류 모든 제품을 원하는 규격으로 재단, 배송

⑥ **최고 수준의 초경칼(재단 Knife) 사용으로 우수한 품질 확보**

⑦ **특수지 전문센터 운영으로 전 품목 소량, 재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급인쇄용지, 팬시지 전 품목 취급
- 충무로, 파주, 성북, 천안 물류 시스템 연계
- 거점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단납기 서비스 제공

○ 출판계 `서점 기행`에 빠지다 _ 매일경제 _ 5/3

'맥주와 책, 매일 강연회가 있는 서점'으로 유명한 도쿄 B&B 경영자 우치누마 신타로와 편집자 아야메 요시노부는 2년 전 서울을 방문했다가
'서점 붐'과 독립 출판의 현장을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출판 대국' 일본에서조차 외면당하는 서점에 젊음을 던지는 이들에 감탄해 2016~2017년에 걸쳐 본격 서울 서점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독립 서점 20여 곳을 방문해 탄생한 책이 '책의 미래를 찾는 여행 서울'(컴인 펴냄)이다. 출판계가 '서점 기행'에 푹 빠졌다.
서울 서점 여행기를 비롯해 올 들어 뉴욕과 도쿄 등지로 떠나는 서점 여행 에세이가 앞다퉈 출간되고 있다.
일본의 두 출판인은 시집만 파는 서점, 온갖 고양이 책을 다루는 서점, 독서 모임에 특화된 서점 등을 방문한 뒤 도쿄와 마찬가지로
1000만명이 사는 도시 **서울에서는 지금 유례없는 서점 붐이 일고 있다.**
특히 작년 여름 이후로 '동네 서점'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서점이 일주일에 한 군데는 생겨나고 있다.
게다가 서점을 개업한 이들은 1980년대 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라고 서점 붐이 새로운 청년 문화의 일환임을 짚어낸다.
"서울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기 넘치는 움직임이야 말로 책과 콘텐츠 미래에 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감탄하기도 한다.
국내 저자들은 반대로 뉴욕과 도쿄로 떠났다.
2017년 여름 출판전문지 퍼블리셔스 위클리 뉴욕 본사에서 한 달간 일하게 된 편집자 안유정 씨는 '다녀왔습니다 뉴욕 독립서점'(왓어북 펴냄)을 펴냈다.
여름의 더위를 피해 매일 밤 맨해튼 서점으로 퇴근한 그는 뉴욕 독립서점 19곳과 대형 서점 4곳을 방문한 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에 답해준다.
이 책은 독서 인구 감소와 인터넷 서점의 공격적인 마케팅,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생존 보고서다.
두 번에 걸쳐 다녀온 서점 기행 끝에 결국 자기 책방을 준비하고 열기까지 과정도 소개한다.



○ 불황 해법 '펄프 픽션' _ 아시아경제 _ 5/16

무림 4:3:3, 한솔 3:3:3 혁신 스토리
"외부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고객들의 요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거친 풍랑과 마주칠 수 있다."
무림페이퍼, 무림P&P, 무림SP 등 제지 관련 3사를 거느린 무림그룹 이동욱 회장은 올해 초 임직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4:3:3 경영'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저수익 지종의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지종 생산비중을 높이기 위해 인쇄용지와 특수기능지, 펄프를 활용한 신소재 사업 비중을 각각 4대 3대 3대으로 맞춘다는 내용이다.**
2011년 제지업계 최초로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을 구축한 게 국제 펄프가격 등락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는 혁신이었다면
'4:3:3 경영'은 중국발(發) 불확실성 등 다변화한 국내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전략이다.
무림과 함께 제지업계 양대 산맥인 한솔제지 역시 이런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부터 **인쇄용지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판지, 감열지, 팬시지, 특수지 등 성장시장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국제지연합회 회장으로 국내 제지업계를 대변하는 이상훈 한솔제지 대표는 이와 동시에 '3·3·3 경영'이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2020년까지 **한솔그룹 내 제지 사업군의 매출을 3조원으로, 영업이익은 300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신제품 비중을 30%까지 높인다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주력인 감열지 생산 규모를 세계 1위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토대로 한솔제지를 '글로벌 톱20' 기업으로 키운다는 게 이 대표의 복안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솔제지는 1분기 222억원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3% 증가한 결과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 4772억원을 기록했다.
제지업계 관계자는 "산업용지의 원재료인 고지의 가격이 약 9% 하락하고 국제 펄프 가격이 고점에서 보합세에 접어든 시장요인에 혁신 리더십이 보태져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 '책의 나라' 파주출판도시 20년 만에 조성 완료 _ 연합뉴스 _ 5/17
- "세계적 문화클러스터·한반도 평화 전진기지로 발전"

문화 명소인 **파주출판도시(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20년 만에 완료된다.**
입주사 통합 단체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문화클러스터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화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파주출판도시는 20년간의 조성 기간을 거쳐 **책의 기획부터 편집, 디자인, 인쇄, 제본, 유통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출판산업의 첨단 집적화 단지를 구축**했다.
현재는 출판, 인쇄, 제지, 유통뿐만 아니라 영상, 소프트웨어, 공연전시 업체 등 문화예술까지 아우르는 4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여기에다 북카페, 도서관, 갤러리, 문화학교 등 문화시설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지향, 책과 영화의 도시 건설본부, 영상자료원 보존센터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서면서 융복합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파주출판도시는 입주업체마다 독특한 외양의 건물을 지어 개성 넘치는 건축물 집합 공간으로도 유명해졌다. 231개 업체가 자사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31개 업체는 현재 건립 중이다.
남북 화해 시대를 맞아 판문점, 헤이리 등 주변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화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파주출판도시는 올해 '책의 해'를 맞아 주요 단체들을 중심으로 출판산업을 진흥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저자와 음악가, 예술가가 참여하는 '인문학당 콘서트'를 100여 회 개최하고, 어린이책잔치와 파주북소리 등의 행사를 통해 즐거운 독서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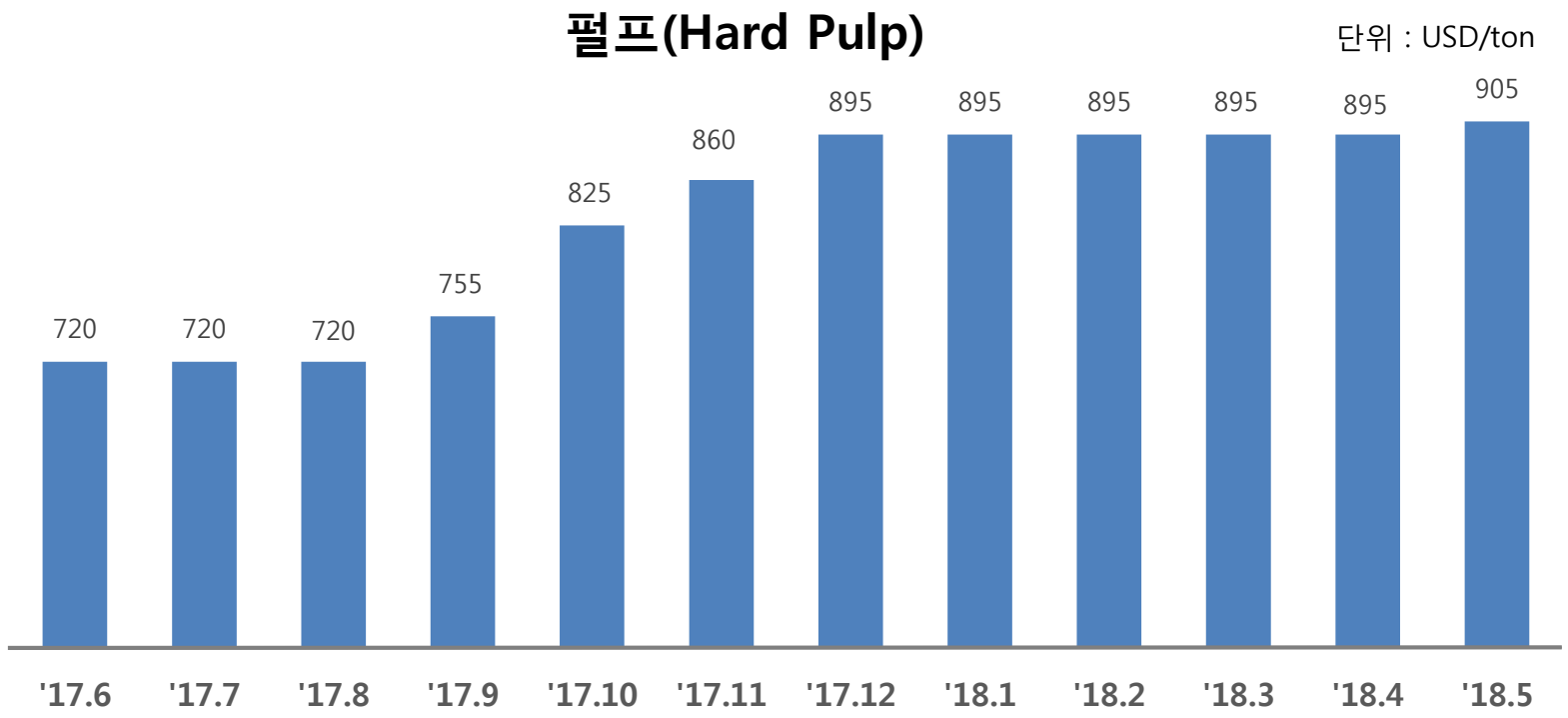
파주출판도시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제공]

유첨. 펄프

○ APP, APRIL의 공급 축소와 아카시아 공급사들의 주도적 가격인상 추진으로 중국에서 하드펄프 가격 $5~$10 인상됨

○ 5월은 메이저 공급사들의 미실현 인상분 ($10) 및 추가 가격 인상요인으로 $10~$20 수준으로 가격인상 가능성 높으며 라마단(5/15~6/15) 운송 차질 대비 APP 자체 비축량 높음

○ 펄프 가격이 역사적 고점 수준이지만 글로벌 생산능력의 10% 수준인 350만톤 수준의 증설 물량이 시장에 유입되면 3분기 안에 펄프 가격 안정화 가능성 존재함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I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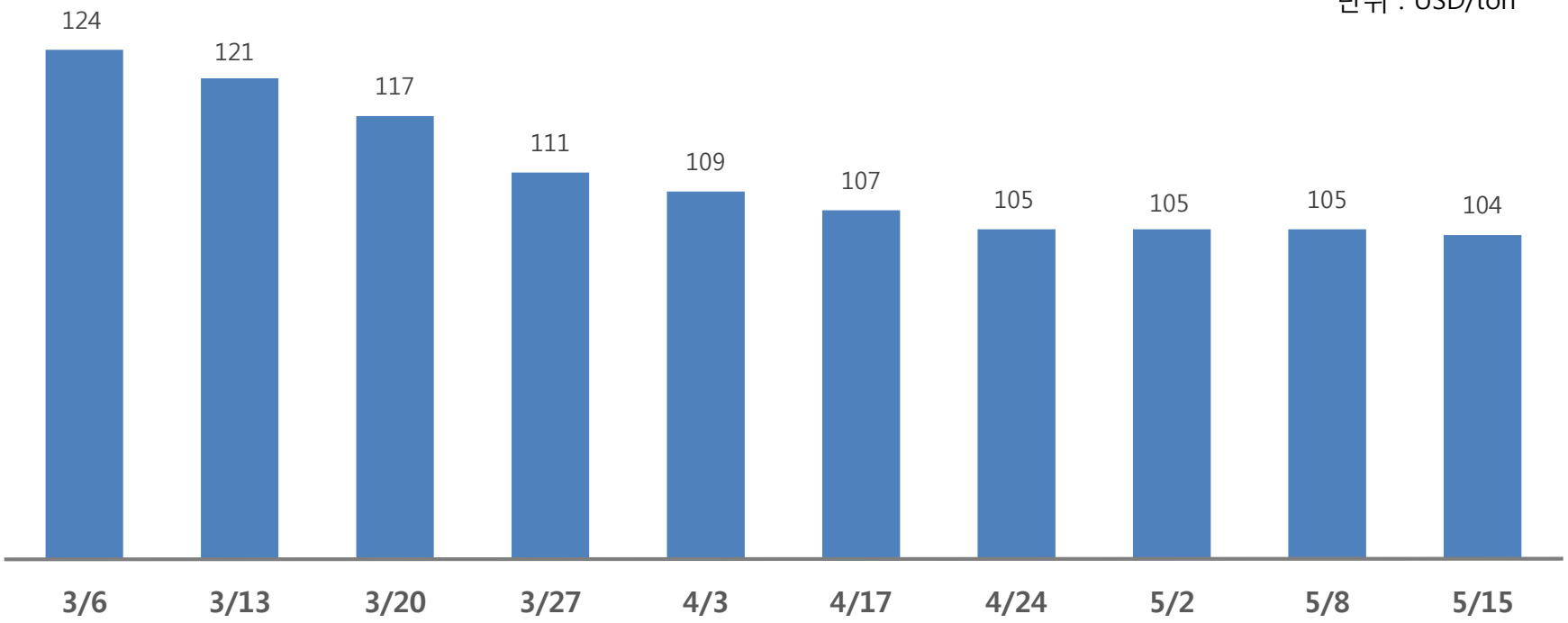
유첨. 고지가

○ 공급자 재고 과잉(수출 감소) 및 제지사 적정재고 유지로 가격 하락 중이며 중국向 수입검사 1개월 중지 따라 가격 급락 가능성 높음

○ 환경부는 향후 추가적인 선매입과 비축을 통해 적체 물량 해소를 유도하고 가격 동향과 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18년 고지가 동향 (3~5월)

단위 : USD/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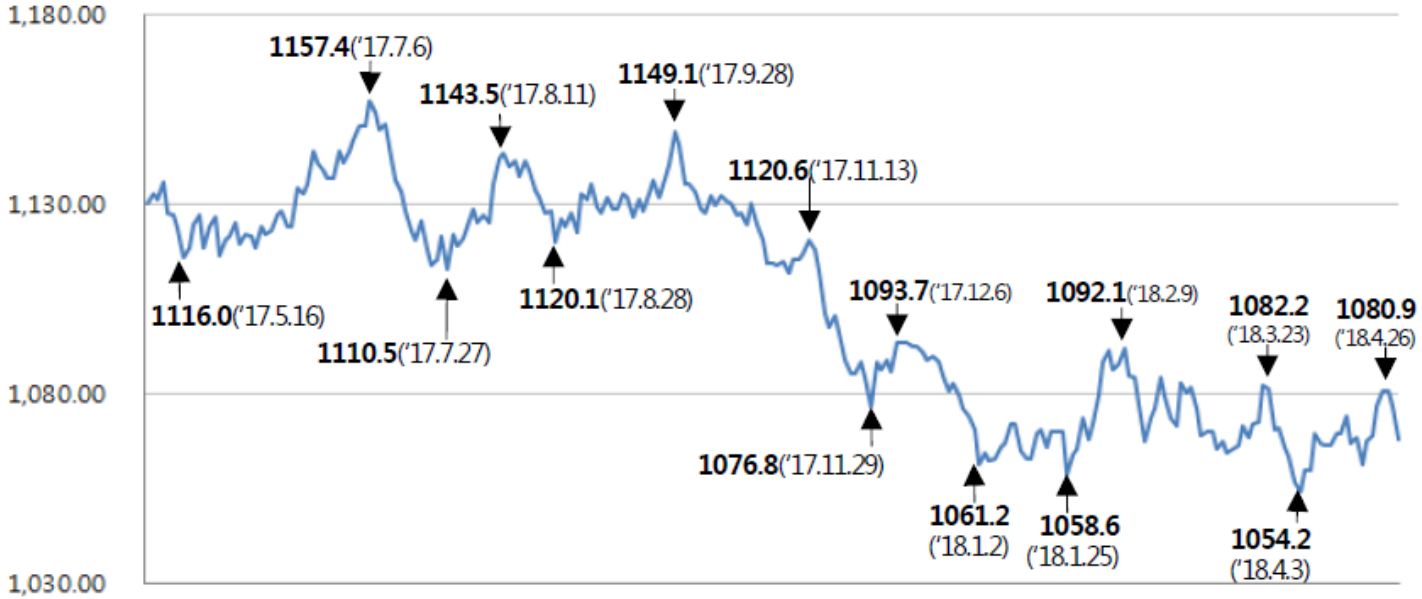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유첨. 환율

○ 환율은 월 초 美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파로 약세 출발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금 역송금 관련 매수 확대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美 中 무역 분쟁 완화 조짐 등에 일시 하락함

○ 월 말에 美 국채 금리 3% 돌파 등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로 급등한 환율은 월 말 국채금리 안정화 등에 위험 회피에 따른 상승폭이 꺾여 1,068.00원에 마감함

【 최근 1년('17.5월~'18.4월) 원/달러 환율 추이(종가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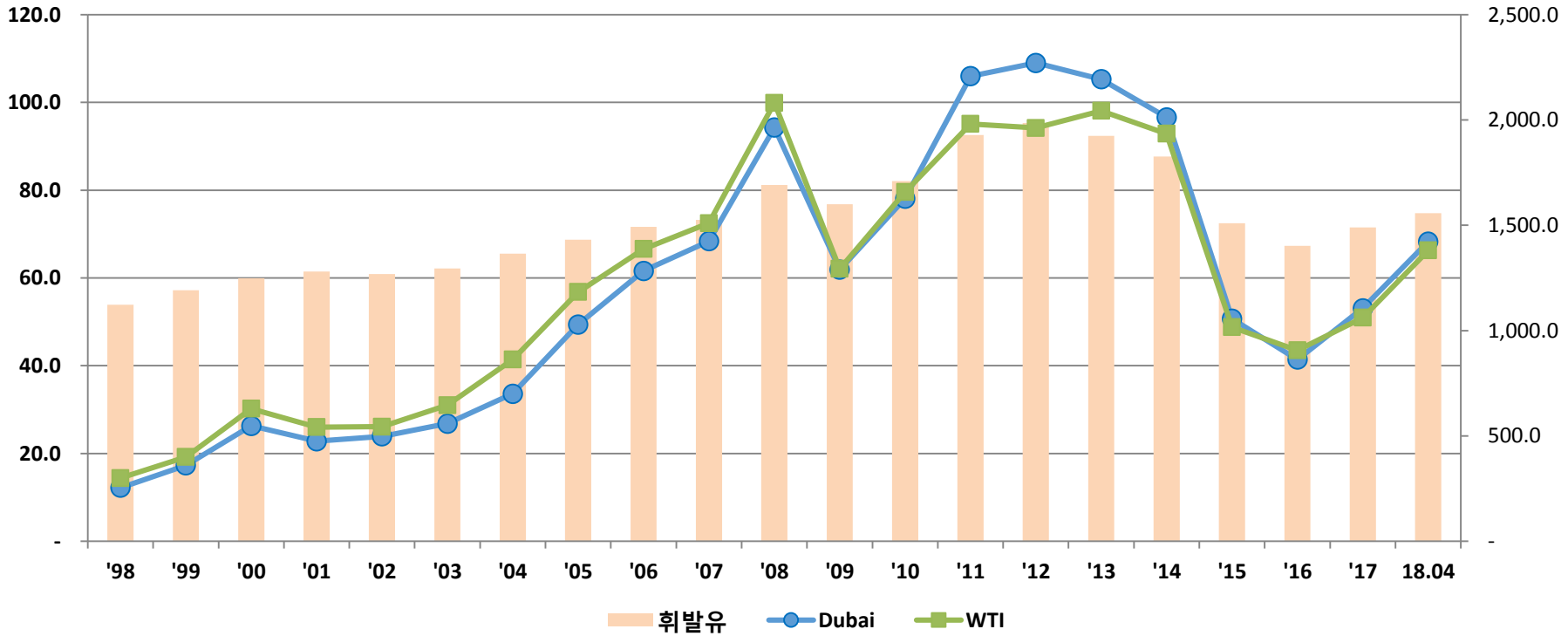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유첨. 유가

○ 글로벌 무역 분쟁 우려, 미국 및 러시아 원유 생산 증가 등으로 임시 하락하였으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완화, 석유시장 재균형 조짐 등으로 유가 상승함

○ 미국 석유 생산량 증가, 2018년 말 OPEC 감산 종료 예정 등 세계 석유 시장 공급 과잉 우려로 큰 폭의 유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 KESIS 에너지통계월보

유첨. 주력 제품 소개 (앙상블 E-Class)

Hansol

○ **앙상블 E-Class**

- 백색도, 인쇄성, 러프감이 균형있게 어우러져 완성된 프리미엄 고급인쇄용지
- 탁월한 색상과 이미지 재현력, 뛰어난 부피감을 가지고 있어 인쇄물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 줌

제품 스펙

평 량

- 100g/㎡
- 190g/㎡
- 130g/㎡
- 210g/㎡
- 160g/㎡
- 230g/㎡

색 상

- 백색
- Extrawhite

규 격

- 국판/4*6판 정규격 보유
- 변규격 주문 생산 가능

장 점

- 탁월한 색상과 이미지 재현
- 질감 유지, 뛰어난 잉크 건조
- 균형있는 백색도, 인쇄성, 러프감



유첨. 한솔제지 월간지 소식

○ **한솔제지 뉴스레터 [가지(加紙 - 더할가, 종이지)]**

- 가지는 종이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을 만나 취재하여 소개 하는 감각 매체
- 가지는 종이를 매개체로 일하는 디자인, 출판, 인쇄 관련 종사자는 물론 종이를 닮은 직업과 활동가들을 만난 인터뷰가 주 내용임

★ 새롭게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솔제지 홈페이지 샘플북/가지 신청란에서 신청

(담당자 : 한솔제지 마케팅팀 김예진 사원 (02-3287-6271)

